

농어촌공사 이광래 상임감사, 전남본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점검

등록 2025.03.07 19:57

강기운 기자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나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광래 상임감사가 7일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청년농을 격려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농지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이면 1인당 0.5ha까지 10년간 임차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차를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스마트팜은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나주시 세지면에 설치한 2,646㎡(8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2동으로, 지난해 3월 준공했다. 현재는 청년농업인 2명이 스마트 온실을 각 한

동씩 10년간 임차 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농촌 지역을 활성화 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전남본부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점검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3.10 12:24

이광래 상임감사, 청년농업인 만나 격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지난 7일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청년농을 격려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농지와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이면 1인당 0.5ha까지 10년간 임차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임차를 허용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나주 스마트팜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20:24 |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2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7일 전남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상임감사는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청년농을 격려하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광래 상임감사, 나주 스마트팜 현장 점검.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조은정 기자 = 2025.03.07
ej7648@newspim.com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농지와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젊은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장기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활용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은 1인당 최대 0.5ha의 농지를 10년간 임대받을 수 있다. 1회 재임차가 가능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받는다.

나주 세지지구의 경우 총 9억원을 투입해 세지면에 설치된 2646㎡(800평) 규모의 스마트팜 2동을 작년 3월에 준공했다. 현재 청년 농업인 2명이 각각 한 동씩 임대받아 운영 중이며, 방울토마토

를 생산하고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전남본부 스마트팜 현장점검

2025년 03월 07일 (금) 오후 04시 42분 40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7일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청년농을 격려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농지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나주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이면 1인당 0.5ha까지 10년간 임차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차를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스마트팜은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나주시 세지면에 설치한 2,646㎡(8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2동으로, 지난해 3월 준공했다. 현재는 청년농업인 2명이 스마트 온실을 각 한 동씩 10년간 임차 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전남본부 관내 '스마트팜' 현장 점검

김도윤 기자

승인 2025.03.18 10:23



나주 세지지구에 위치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7일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청년농을 격려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농지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18

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이면 1인당 0.5ha까지 10년간 임차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차를 허용해 스마트팜 영농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나주 세지지구에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지은 2,646㎡(800평) 규모 스마트팜 시설 2동으로, 현재 청년농 2명이 스마트 온실을 각 한 동씩 10년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윤 기자 nh9669@daum.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